

기고



퇴 허 자  
광주 대각사 주지

아름다운 정년(停年)

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무언가 일이 주어질 때 비로소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진다는 얘기이다.

수많은 통계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직장에는 정년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일 없이 놀고 있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쉬는 날'이라고 했을 때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될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아마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특히나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까지 말하고 있지 않던가.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무탈(無脫)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와 허탈감으로 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만약 그렇다면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 일 없는 것처럼 피곤한 사실이 어디 있는가. 일 없이 노는 것은 쉬는 게 아니다.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때만이 진정한 '쉬'이 되는 것이다.

나 역시 한 때 위암수술 끝이라 핑계대고 1년여를 일손을 놓은 적이 있었다. 그때 새롭게 느꼈던 것은 세상이 내게 일거리를 주

는 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렇다. 우리의 일생은 일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일없는 사람은 마치 배가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을 잃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한 쌍둥이 자매가 출연해 자신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참으로 묘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초, 중,고,대학을 같은 학교를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똑같이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되었으며 정년도 함께 한날한시에 했다는 것. 요즘엔 또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동호회를 만들어 여기저기 복지회관을 찾아가 노래봉사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일상에는 바로 자신들이 주인공으로 삶을 계획하고 일거리를 만들면서 재미있게 꾸며가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한 삶이란 역시 마침표가 없다. 인생을 보다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깨어들 틈새가 없다. 삶의 무기력함이나 우울증 같은 부정적 요인들도 더욱 침투하지 못한다.

나는 평소 인생은 재미와 의미 그리고 보람을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 삶이 재미가 있고 의미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보람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 나의 인생철학이요 신념이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제주에 내려가 힐링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미있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재미있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의 의미이자 보람이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 것이다.

인생은 재미와 의미, 보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생활을 순간순간을 재미있게 살다보면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요 행복이다. 재미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본래 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리 못할 것도 없다. 물론 인생이 참을 인(忍)자 인생(忍生)이긴하나 서로 배신 운운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년(停年)은 보다 강단지고 세련된 인생이다. 자고로 인생은 육십부터 시작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동안의 삶의 지혜를 모두 발휘해서 지고지순한 이순(耳順)의 삶을 살다가야 한다.

법조칼럼



문 방 진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법정에 갇힌 국선변호

활동 무대는 법정인 반면 외국영화의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를 돕고 있다는 점이다.

1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지적장애인이 주인공 이몽구는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갈 때까지 그 누구와의 접촉도 차단된 채 혼자서 경찰관의 폭력, 고문 그리고 회유를 견뎌내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금방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경찰관의 회유에 속아 주인공 이몽구는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다. 혹시 수사 초기 단계에 이몽구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반면 대부분의 미국 법정 영화에서는 수사기관의 신문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은 미성년자, 노인, 심신장애

자, 중형이 예상되는 자 등 특정한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은 '형사피고인'(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심문 단계에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때 선정된 국선변호인도 영장심문법정 안에서 그 역할을 할 뿐이고, 수사단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차관우 변호사처럼 국선변호인이 경찰의 현장검증 장소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을까? 지난 18년 동안 법대 위에서 재판을 해 온 법관의 입장에서 자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법정을 박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의 도움이 더 절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미성년자,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

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선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불법 수사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실에서의 고립으로 인한 피의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에 와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의 결과를 뒤집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에 관하여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 대기업 총수나 유명 정치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될 때에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제 국선변호인도 법정의 변론을 넘어 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 노인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에게로 한발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는 국선변호인의 자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법정을 박하고 사건현장과 경찰서로 달려가는 차관우 변호사가 우리의 현실에서도 실제로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임 창 택  
농협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팀 팀장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

피해가 발생하여 좀처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본인 또는 가족의 사건·사고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ATM을 이용하여 사기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내어 직접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불법대출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를 저지른다.

실제 사기범들은 개그 코너에서와는 달리 유창한 우리말을 구사한다.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나 그야말로 '초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말투로 전화금융사

기를 의심하기는 힘들다.

사기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이다. 범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공황'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면 우리의 뇌는 절대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마치 귀신이라도 홀린 것처럼..

범인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사람이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말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아무 이유 없이 예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나서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다수 있으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말을 무시하고 송금을 해버린 경우도 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 하더라도 생면부지의 범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십년간 거래해 온 금융기관 직원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약 독자께서 노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명심하게 바란다. 노인들은 정보에 취약하고 낮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기 쉬워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평소 애 많은 대화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의 위험을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내용을 알 수 없거나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와 먼저 상의한 후 일을 처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자녀와 통화하도록 주지시킨다면 전화금융사기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이른바 '대표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 개설 시 인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예금거래 신청서와 고객에게 '설명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을 경우 양도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순간 공범이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어린 남자아이들의 여탕 출입 연령 규정을 만 3~4세로 낮추는 것이 더 나을듯하다. 또한 요즘 만 3~5살은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연령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성을 호기심 때문에 쳐다보는 것이지, 어떤 음흉한 목적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목욕탕이든 일반 장소에서든 남의 몸을 뻔히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성교육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유치원 때부터 실시하는 성교육 시작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통돌

社說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 반대가 웬말인가

정부가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을 현재 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해야할 지자체가 되레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 등 모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실 이번 용역도 국제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을 재검토해야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특히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최근 전국을 돌며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이 미국(80km), 헝가리(최대 300km), 독일(25km) 등에 비해 턱없이 짧아 30km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도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국제기구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비상계획구역은 전작에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 원전사고 가능성이 0% 라면야는 이유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해야할 지자체가 되레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일본정부는 부실한 비상계획구역 탓에 초동대처에 실패했다. 결국 시간이 한참 흐른 뒤 30km까지 주민을 소개시켜 대추환을 겪었던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원전재앙에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후쿠시마사고의 생생한 교훈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제기준에 맞춰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 지자체들도 반대를 접고 계획구역확대에 따른 주민안전대책과 방호대책을 수립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바다숲으로 서남해 사막화 막아야 한다

깨끗한 환경과 전국 제일의 해양수산 생산력을 자랑하는 전남의 서남해가 심나 없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특히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최근 전국을 돌며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이 미국(80km), 헝가리(최대 300km), 독일(25km) 등에 비해 턱없이 짧아 30km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로 깨끗했지만 2010년부터 피해 면적이 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전국장각한 갯녹음 현상인 사막화로 병들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목장화 사업 등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대안 강구가 시급하다.

지난 2004년까지도 전남 바다는 갯녹음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청정해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구촌 전반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난화에 따라 매년 곳곳에서 꾸준한 사막화가 진전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남해안 바다 900ha에 걸쳐 갯녹음 현상이 관측된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가 지난 2004년 이후 5년마다 관측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무안·영광·신안 등 서해안 피해면적은 158ha으로 조사됐다. 여수 등 남해안에서는 753ha에서 갯녹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남해안의 경우 지난 2004년 조사 때는 해도 전혀 발견되지 않을 정도

**無 等 鼓**

“경기가 계속될수록 발전하는 한국 선수들을 만났다. --오늘 밤은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싶다.”

2002년 6월 14일,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 거스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우승후보로 꼽혔던 포르투갈을 1-0으로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짓자 인터뷰에서 승리의 기쁨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포르투갈전 결승골은 박지성의 몫이었다. 후반 25분 이영표의 볼을 가슴으로 받은 박지성은 오른쪽 발로 수비수를 살짝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상대편의 골네트를 흔들었다.

골을 작렬시킨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팔을 활짝 벌리며 환호를 연출했다.

이탈리아와 경기를 앞두고 “나는 아직 도(승리에) 배가 고프다”(I'm still hungry)고 밝힌던 히딩크 감독과 태극전사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잇달아 이기며 기적 같은 월드컵 4강진화를 썼다.

월드컵 이후 박지성은 네덜란드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EPL(잉글랜드 프리

미어 리그)에 진출해 월드 스타로 성장했다. 한국 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쟁쟁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뛰는 그의 모습에 열광하고, 반면 부상소식은 마음을 졸이곤 했다.

박지성이 출전기회조차 잡지 못하던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에서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으로 이적한 후 다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 21일 AC밀

란과의 홈 경기에서 68분간 8.81km를 뛰며 중흥무진 그라운드를 누빈데 이어 25일 열린 SC 헤라클레스와의 경기에서는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냈다.

네덜란드 PSV 팬들은 '위송빠르크'(지성박의 네덜란드식 발음)를 부르며 박지성의 귀머야기는 세리머니를 연출했다.

'위송빠르크'는 PSV 팬들이 영국의 팝그룹 '픽백'의 노래에 맞춰 개사한 박지성 응원가이다.

'산소탱크'로 불리는 박지성이 8년만에 복귀한 네덜란드 무대에서 맘껏 기량을 뽐내며 활약하기를 응원한다.

“오~오~오~오~ 위송빠르크.”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 州 日 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문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The Kwangju Ilbo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취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자아이 여탕 출입 연령 만 3~4세로 낮춰야

얼마 전 목욕탕에서 약간 난감한 상황을 목격했다. 내 옆에서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성 앞으로 조그만 남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우와 우리 엄마보다 짜짜 크다”며 그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내가 옆에서 지켜봐도 약간 황당한 일이고 그 당사자인 여성도 화들짝 놀래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고는 화가 나서 “어머, 뭐 이런 아이가 다니냐? 당장 너희 엄마 데려와!”라고 인성을 높였고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이내 달

려온 그 아이 엄마는 건성으로 사과는 했지만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별 그걸 가지고 요란을 떠느냐는 표정이었다.

여탕에 들어온 남자아이를 탓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여성들은 아이들의 엄마에게 항의를 하거나 목욕탕 주인에게도 항의하게 된다.

피해를 느낀 여성들은 아줌마들이 다 큰 아이들의 나이를 속이고 여탕에 데리고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목욕탕 업주들 역시 남자

아이가 재한 연령을 넘겼다든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돌려보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통을 터트린다.

그런데 목욕탕 주인들의 고충도 털어놓는다. 즉 법적으로는 목욕탕에는 만 5세 이상의 남자 아이를 여탕에 데려올 수 없게 돼있다. 우리 나이라는 6살이 되는데 요즘 애들이 조속해서 그 나이에도 알 것에는 다 안다는 것이다.

즉 목욕탕 업주들이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제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이에 맞게 들어오는 건데 아이들이 조속하게 문제라는 것이다.